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8년 4월 13일(금) ..(음력 2월 28일).. Пятница 13 апреля 2018г. № 14(11678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사할린 제26회 <2018 대학생의 봄> 축제 개막

지난 10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스톨리차> 비즈니스센터에서 <2018 대학생의 봄> 축제가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축제에 18개소 교육기관의 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4일(토)에는 폐막식이 진행된다. 참가 장르로는 음악, 무용, 연극, 독창적 장르, 동영상, 신문잡지 문학, 쇼 프로그램 등으로 자신의 재능을 한껏 발휘할 기회가 주어진다. 대학생들을 위한 전문가들과의 만남도 이뤄지며 자원봉사단도 조직될 전망이다.

축제 개막식에서 주 정부의 안톤 자이체브 부수상은 참가한 대학생들을 환영하며 "해마다 개최되는 이 축제는 새로운 영재들을 발굴해 내고 있다. 이 축제를 통해 재능있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애국심을 고양시키며, 대학생들의 창의성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축제의 동기를 언급했다.

축제는 4월 13일(금) 같은 장소에서 갈라 콘서트로 마무리된다.

이번 축제에서 선발된 우승자들은 5월 15일-20일간 스타브로폴리에서 진행되는 <러시아 대학생의 봄> 전 러시아 대학생 축제에 사할린 주를 대표하여 출전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대통령 주재 회의, 사할린 건설 문제 논의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가평의회에 초대된 올레그 코제마코 사할린 주지사는 러시아 북극 지역과 준북극 지역에 건설회사들의 경쟁력 증강을 위한 동등한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회의에서 극동지역, 사할린주, 야쿠치아 공화국, 캅차트카주, 추코트카 자치구의 건설회사들의 경쟁력 증강 방안에 이고리 아르체미예브 러시아 반독점관리국장이 지지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지방 건설기관들을 위한 사할린 주정부 지도자 참석회의에서는 위의 안건을 논의하고 반독점관리국과 협력협정도 체결할 예정이다. 협정 체결로 주요 투자계획 실시과정의 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할린의 건설회사들은 건설

부문 경쟁 입찰에서 낙찰되지 못하곤 한다. 입찰 규정에 따라 사할린 근로자들에게는 극지방 가급률이 붙어 근로자들에게 추가 휴가를 제공하고, 휴가비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 대상의 비용이 20%-25%가 높아진다. 이런 점에서 타 건설사와는 비용상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과 극지방의 건설사들은 쇠퇴의 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고용해 건설에 임하지만 건설상 기술과 솜씨에서 뒤떨어지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고, 사할린 섬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통령의 지시도 제때 실행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시가 하달되었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제28회 사할린 <올해의 교사> 콩쿠르 개최

지난 10일(화) 사할린 주 중심도시에서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교사의 위상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28번째 교사 콩쿠르가 시작되었다. 4월 10일(화)-17일(화)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보충교육센터, 제1 리체이, 제7초등학교, 제55 <웨스누쉬카> 유치원 - 4곳에서 콩쿠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콩쿠르에는 15개 구역에서 29명의 교사들이 참가한다.

현재 사할린에는 1만여 명의 교육 전문가와 교사들이 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교사들 평균 연령은 35세이다. 콩쿠르에는 신입교사와 경력이 풍부한 교사들까지 수학, 물리학, 정보학, 역사, 사회학, 러시아어, 문학, 화학, 생물학, 영어 과목을 비롯한 여러 과목의 교사들이 공개수업으로 실력을 펼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교사회의에도 참석하게 된다. 콩쿠르 결선에서 <사할린 주 교사>, <사할린 주 유치원 교사>, <교사 데뷔> 부문에 각 1명씩, 3명이 선정된다. 우수교사 발표와 시상식은 4월 17일(화) 안톤 체호브극장에서 진행된다.

단신

세웨로쿠릴스크에 연안 수산물가공공장 건설 계획

사할린 주 세웨로쿠릴스크에 연안 수산물가공공장 신축에 <그라니스> 수산업체가 수주했다.

계획으로는 2019년9월을 완공으로 3억5천만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이 회사의 드미트리 마카렌코 부사장은 "러시아 연방 정부로부터 제일 먼저 투자금을 받아 북 쿠릴에 첨단기술장비를 갖춘 연송어 가공공장을 기공하게 되었다."며 쿼터에 따라 4500만 톤의 해산물이 채취된다면 1년 내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고, 파라마쉬르섬에는 1년에 연송어 치어 5천만 마리를 양식할 수 있는 양어장을 우리의 능력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학 경시대회 개최

오는 20일(금) 오전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정기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된다.

말하기의 주제는 <스포츠에서 전통민속>이다. 이번 말하기대회는 사할린주 정부(주교육부), 사할린국립대학교 한국어과,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사할린한국교육)의 주최로 진행된다. 경연은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는 정해진 문형을 이용해 <스포츠에서 민속풍습: 전통과 현대>란 주제로 발표해야 한다. 한국어 초보자들에게는 <한국 전통민속놀이>란 시를 낭독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같은 날 오후 사할린국립대에서는 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의 한국학 경시대회가 열린다. <한국 전통 민속놀이>란 주제의 이 행사는 사할린 주정부, 사할린 주한인회, 사할린국립대가 공동으로 하는 <세대의 연결, 전통의 이어짐>이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질문에 답을 맞춘 후 이 기획의 두 번째 단계로 공예 활동교실(한지 기념품 만들기 등)이 펼쳐질 것으로 전해졌다.

하바롭스크에서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토의

오는 14일(토) 하바롭스크에서 <극동 헥타르: 분배에서 개간까지>란 주제로 좌담회가 열린다.

이에 극동헥타르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은 주민들과 하바롭스크 지역대표들, 연방 극동구 대통령 전권대표, 지역 토지재산부 책임자들이 참석한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극동 헥타르> 실시에 대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수정할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는 헥타르쉬키(우리는 헥타르 받은 사람)> 지역사회단체 설립 행사가 진행된다.

새로운 사회단체는 지방정부와 상호관계를 확고히 하고, 현행법 개혁에도 적극 가담하며, 선진화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 주민들에게는 각각 1헥타르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한다.

분배 받은 주민들은 1년간 어떻게 토지를 운용했는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5년간 토지를 개간하고 경작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 임대도 가능해진다고 전해졌다.

작년 11월에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에서 진행된 한 행사에서 안면이 있는 젊은 여자 분을 만났다. <드림>여행사의 박 울리아 사장이었다. 알고 보니 이 회사는 사할린 한인 역사탐방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관광객들을 위해 새 관광상품을 조성하는 중이었다. 열심히 뛰고 있는 젊은 여성 사업가를 소개 하기 위해 얼마 전에 본사 배순신 기자는 박 울리아 사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우선 자기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저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루고위에 출생입니다. 쌍둥이 동생과 함께 처음엔 공업경제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모스크바 국립상업경제대학 유즈노사할린스크분교 회계 및 감사과(통신과)에 입학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첫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 일자리가 1998-1999년 당시 사할린에 새로 열린 아시아나항공 사할린 지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처음 나갔었는데 정직원이 되어 한때 이정우 초대 지점장과 함께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한국어를 거의 몰랐었어요. 인사말 정도만 했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항공권 예약시스템을 배워야 했고, 티켓 판매도 해야 했고 보고서 작성법도 알아야 했습니다. 한두 달 동안 직원으로서 혼자 업무를 처리해야 했어요. 그땐 좀 많이 어려웠죠. 나중에 서 알렉세이가 입사하면서 오랫동안 동료로 지내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여행사는 어떻게 운영하게 되었는지요?

- 한국 사람 한 분이 "자신이 투자할 테니 여행을 해보고 싶지 않느냐?"라고 해서 여행사 월급사장으로 여행을 개업하게 됐어요. 그땐 아시아나에서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드림>여행사 박 울리아 대표사와의 인터뷰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여행사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항공권을 파는 것만 아니라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껴거든요. 현재 저도 회사 설립자 중 하나로 돼 있어요.

-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계세요? 해외 관광 아니면 인바운드 관광(여행객을 불러들이는 관광)으로 작게는 타지역의 관광객, 넓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인가요?

- 첫째는 우리 여행사는 모든 방면의 항공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만 아니고 러시아 전국 여러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 항공권 (23세 미만 청소년, 55세 이상 여성 연금자, 60세 이상 남성 연금자 등)도 판매하기도 하고 해외관광 그리고 인바운드 관광 여행사로 인증받았습니다. 여행

사 사업등록 명단에 등록하려면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여행 같은 경우 그런 인증 등록증을 받기 위해 작년에 우리는 30만 루블리를 지불했거든요. 이 등록증 없이는 해외관광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인바운드 관광 등록 같은 경우는 해외관광 등록금보다 10배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우리 여행사는 해외 파트너와 직접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외관광업을 하는 여행사로 꼭 등록해야 합니다. 여행사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여러 나라와 일하고 있습니다.

- 고객은 많은가요?

한 2-3년 전에 달러 가치가 폭등되어 해외여행 지원자가 많이 줄었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다시 해외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태국, 사이판, 베트남 등을 찾아가는 고객이 많고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지로 여행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여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세계 편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 여행상품(패키지 투어)을 사지 않고 주로 항공권만 구입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러시아어로 발행한 여러가지 한국여행 안내서에는 자세한 정보가 적혀 있어서 혼자 직접 여행하기가 쉬웠습니다. 또 우리 동포 같은 경우 한국에 가족이나 친척이 많아 관광패키지가 필요없는 거죠. 다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으로 학생 캠프(영어캠프) 패키지를 판매합니다. 보통 방학 때 여러 학생투어를 합니다.

- 단골 고객들은 있지요?

- 네, 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매니저에게만 주문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매니저가 4명입니다. 과거에 한 매니저는 항공권 예약, 판매를 하고 다른 매니저는 호텔 예약, 관광 코스 등을 맡았는데 가끔 다른 매니저에게 변경 사항을 잘 전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을 포기하고 한 매니저가 항공권 예약부터 시작해 고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 회사는 사단 법인 고객도 있습니다. 큰 회사는 별로 많지 않은 5개 정도고 나머지는 소기업들입니다. 계약한 회사라 우리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꾸준히 구입하는 거죠.

현재 한국에서 <고르니 위스두흐>스키장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할린은 자연적 눈이 많고, 스키 시즌이 한국보다 더 긴 천혜의 조건으로 작년 3-4월에 스노우보드 선수들이 사할린을 찾았고 올해 3월 중순에는 한국 올림픽 대표팀 선수 10명과 관광객 20명, 그리고 카메라맨과 영화감독 등 총 36명이 다녀갔습니다. 그중 중에 영화 제작팀이 있었는데 이 팀은 우리 스키장을 카메라에 담아서 한국에 홍보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사할린에 한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작년 12월 말에 한국의 10개 여행사 대표들을 모시고 사할린 여행 홍보투어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여행사 파트너로는 아시아나 항공 사할린 지점, <메가플라스>호텔이

나섰고 주 스포츠부에서는 <고르니 위스두흐>스키장 스키패스를 지원했습니다. 스키장에 관심 있는 한국여행사도 있었고 일반 투어, 스노우 슈즈(눈신발)로 등산하기, 스노우바이크 타기, 사할린동포 역사 탐방 등에 관심을 가진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보여 줄 것은 좀 있긴 한데, 사할린에는 제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항공권이 너무 비싼 점이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상품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 문제해결에 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행사가 사할린 스키장에 관심을 가진 한국 관광객 약 60명을 올해(주로 3월에)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 사업가로 열심히 뛰면서 가족도 잘 이끌어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아이 셋이 있습니다. 첫 아들은 14세, 둘째 아들은 6살이고 우리 막내딸은 2살입니다. 첫째는 아시아나에서 일할 때 태어났고 둘째와 셋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낳았습니다. 남편이 많이 도와 주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 좋아하는 문구나 격언이 있으신지요?

- 코코 샤넬의 <모든 것이 우리 손에 있다. 그러니 절대 손을 놓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26세부터 여행사 경영을 시작한 박 울리아는 사업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열심히 살고 있다.

그녀의 열정적 삶에 응원을 보낸다.

이모저모

사할린, <여러 세대의 아동 회화를 통해 본 북방 민족문화. 모스크바에서 사할린까지> 학술대회 개최

사할린 주 미술박물관과 러시아 교육아카데미 미술교육·문화학 연구소는 <엑손 넵체가스 리미티드> 회사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여러 세대의 아동들의 그림을 통해 본 북방소수민족들의 문화. 모스크바에서 사할린까지>교육전시기획에 사할린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본 기획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북방소수민족 아동 그림들의 역사연구 보편화와 발전;

- 북방소수민족 전통문화에 있어 전망적인 발전의 방향 설정과 아동의 창의성을 일깨우는 방법.

2018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할린 주 미술박물관에서 러시아 교육아카데미 일반·교육 심리 연구소(모스크바), 러시아 교육아카데미 미술교육·문화학 연구소(모스크바), "학교 예술교육" 잡지(모스크바), 사할린 주, 캄차트카 주, 하바롭스크 주, 사하(야쿠치아) 자치공화국, 한티-만시이스크 자치구(유그라), 돌가노-네네츠키 자치구, 야말로-네네츠키 자치구의 아동미술학교, 예술학교, 스튜디오, 국립센터 교원들의 참여와 함께 <여러 세대의 아동 회화를 통해 본 북방소수민족들의 문화. 모스크바에서 사할린까지> 과학실용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발표문을 출판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2018년 6월 1일까지 693020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레닌 거리 137번지, 우편함 114호 주소로, 또는 museum@isle.ru (학술대회 표시함) 이메일 주소로 참가신청서 (www.sakhartmuseum.ru 미술관 홈페이지 참고) 제출을 요청한다고 사할린 주 미술박물관 측은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ится конференция «Культура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в рисунках детей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От Москвы до Сахалина»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и Институт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ологии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омпании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приглаш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выставочном проекте «Культура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в рисунках детей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От Москвы до Сахалина».

Цели проекта:

- популяризация изучения истории и развития детского рисунка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 определение направления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и пути ее влияния на творчество детей.

5 - 7 сентября 2018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стоитс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Культура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в рисунках детей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От Москвы до Сахалина» с участием сотрудников НИИ общей и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психологии РАО (г.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ологии РАО (г.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ологии РАО (г. Москва), журнала «Искусство в школе» (г. Москва), педагогов детски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школ, школ искусств, студий,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нтр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Ханты-Мансийского АО (Югра), Долгано-Ненецкого АО, Ямало-Ненецкого АО.

Оргкомитет планирует издание докладов,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Оргкомитет просит в срок до 1 июня 2018 года направить заявку (информация на сайте музея www.sakhartmuseum.ru) по адресу: 693020,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Ленина, д. 137, а/я 114 ил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по адресу: museum@isle.ru (с пометкой – конференц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주내 인구 42%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

2017년에 사할린 주 인구는 2837명으로 증가했고 2018년 1월 1일 현재 인구 수치는 49만181명이다. 농촌인구는 424명으로 감소한 반면에 지방도시 인구는 3261명으로 증가했다.

자연적 인구증가는 464명이고 이민자 유입으로 2373명이 증가했다.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난 곳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아니와·코르사코브·쿠릴스크·유즈노쿠릴스크 구역이다.

2017년의 인구분포는 전과 같았다. 주 중앙도시의 주민분포는 1 km² 당 229명으로 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거주하여 인구밀도가 가장 높았다. 사할린 주 평균 인구밀도는 1km² 당 5.6명에 해당된다.

사할린 통계국에 따르면 세웨로쿠릴스크구역의 인구밀도는 1 km² 당 1명 이하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8면에 계속)

세계한인 언론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재외한인언론의 역량 강화에 중점 리더의 조건과 개성공단의 불편한 진실 등 다각적인 주제 다뤄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이하 세언협)가 주최한 제1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가 재외한인언론인으로서의 위상을 증진시키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의 본격 행보에 나섰다.

전 세계 23개국 38개 도시에서 참석한 70여명의 한인 언론인들은 9일(월) 성대하게 치러진 개막식에 이어 10일(화) '한글과 재외한인언론, 급변하는 세계 미디어 환경과 한국어 미디어 산업'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전날 개막식에 이어 세계한인언론인대회를 축하하는 주요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740만 재외동포라는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드는 게 해외 한인 언론"이라고 정의한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은 조국과 해외동포를 잇는 자산이자 한글교육의 최대 공헌자인 해외 한인 언론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디아스포라 시대에 우리말과 정신 계승에 열정을 쏟는 한인언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한국언론학회 이민규 회장은 한국 미디어 산업과 언론 간의 고밀도 산학연구에 세언협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전날인 9일(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이종걸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명현 바른미래당 재외동포위원장 등의 정계 인사들과 현경숙 연합뉴스 글로벌센터 본부장, 홍성덕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최종원 예술산업진흥회 이사장 등 언론 및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한인 언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감과 소통, 한글언론의 사명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재외 한인 언론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모색 등에 관한 다양한 특강이 진행됐다.

<리더의 언어-조직을 바꾼다>를 주제로 강연한 공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박진영 대표는 미국퓨어연구소 조사를 예로 들며 "현대 언어는 역사상 가장 첨예한 양극화와 분열,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공감 부족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좌우되는 현대의 경영과 관리는 고도의 주의력으로 경청하는 리더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며 통일지형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이유로 가려지고 왜곡된 개성공단의 불편한 진실을 고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추진한 진짜 이유가 분단 이념에 의해 은폐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평화와 경제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한 개성공단이야말로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경제적 가치를 실현한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디어 혁명의 시대, 소통의 방법>에 대해 강의한 SBS 김성준 논설위원은 "소통이 설득과 다른 이유는 '공감'에 있다"며 소통의 방법으로 독자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독자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집중하며, 뉴스에 진정성을 담아낼 것을 조언했다.

이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동선 재외미디어 연합 사무총장이 '재외한인 언론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강연'과 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의 건강 강의,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애환과 아픔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멘발의 청춘' 상영 등 다양하고 생산적인 강의가 진행됐다.

전 세계 한인 언론을 대표하는 세언협 회원들은 11일 KBS본사를 방문하고 12일에는 전라북도 전주의 한옥마을과 인천광역시 송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찾았다.

대회 마지막 날인 13일(금)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총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2002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고국을 찾아 세계한인언론인대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간지 '세계한인'을 발간해 국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공동취재단) 최윤주 기자

사할린사범전문학교 조선과 졸업 55주년 기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지난 7일(토) 한국 경기도 안산시 <스마크> 레스토랑에서 사할린사범전문학교 조선과를 1963년에 졸업한 동창(일부는 부부동반)들이 화기에 애한 분위기에서 이수자



동창의 사회로 동창회를 열었다. 동창회에는 사범전문학교 음악 교사로 활동했던 고전두한 교사의 부인 전병옥 여사가 초대되어 참석하였다. 우리는 정 레오니드 야코블레위츠 부교장, 한 갈리나 하리토노브나 담임교사, 림 표 한국어 교사, 전두한 음악 교사 등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반가운 만남을 마련하느라 수고한 파주에 거주하는 이수자, 서봉금, 함정자, 배설자, 안산에 거주하는 유영자 동창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 이날 우리는 세상을 떠난 동창들을 추모하였다.

이수자 동창과 필자, 그리고 신동식(현재 인천 사할린 한인 회장, 1950년대 사범전문학교 졸업)선배가 환영하며 축하했고, 유영자 동창은 경사에 즈음하여 특별히 쓴

시까지 읊어 기념식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지난 세기 일본으로 하여 사할린에 강제 연행된 한인들의 후손들 중에서 첫 지식인들을 탄생시킨 사할린 사범전문학교 조선과는 사할린 한인사회에 역사에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범전문학교 조선과 출신의 선·후배들은 사할린 동토에도 한글과 한민족 전통문화 계승을 유지함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사할린 한인사회계에서는 한글 배우기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이때 사범학교 출신들이 선참 교편을 잡고 한글 교사로 활동했는데 이들 중에 유영자, 배설자, 김정자, 이수자, 고 김선숙 동창도 있다.

구소련 이후 러시아에서 유일한 사할린 한글신문 <새

고려신문사>에서 우리반 졸업생들인 배설자, 이수자, 필자, 고 김선숙 동창이 기자로 근무하였으며, 오늘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동창들 중에서 함정자, 최화자, 이금옥 등은 한국 사할린한인사회단체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동창회 조직자들은 기념 공연까지 준비하여 동창들의 만남의 마당을 웃음판으로 변신시키기도 하였다. 이날 우리는 전두한 음악교사가 55년 전에 가르쳐준 노래도 부르고 왈츠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삶의 근심·걱정을 당분간 내려놓았다.

이날 동창들 대부분은 특별한 경사만을 기다리지 말고 매해 만남을 마련하자는 제의까지 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 동창회 참가자들.
한국 김포에서 안춘대

남양주시체육회, 사할린 동포 스트레칭 교실 신설

남양주시체육회는 이달 들어 매주 화요일 오후 진접휴먼시아 24단지 아파트에서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 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도자교실' 밴드 스트레칭 교실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사할린 동포들은 지난 2010년 영주 귀국해 남양주시를 제2의 고향으로 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남양주시체육회는 체육 복지 사각지대일 수 있는 사할린 동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밴드 스트레칭 교실을 운영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할린 동포회 이수진 회장은 "우리 동포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는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체육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지도자교실을 활용해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 체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교실 개설에 힘써 시민 누구나 체육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인일보)

"제7기 OKFriends 봉사단" 발대식 개최

지난 6,7일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발대식 및 워크숍 가져 국내·재외동포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 통해 국내외 청소년 간 우정 나뉘

대학(원)생과 재외동포 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이하 재단) '제7기 OKFriends 봉사단' 이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발대식을 가졌다.

4.6(금)~7(토), 오크밸리 리조트(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발대식과 워크숍에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 국내 대학생과 국내에서 수학 중인 재외동포 대학생 70명이 참석했다.

'제7기 OKFriends 봉사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자원봉사단원으로서의 소양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거쳐 금년 재단이 시행하는 재외동포 초청 교류

행사에 통역, 행사진행, 멘토링과 국내 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제7기 봉사단으로 선발되어 3년째 활동하게 된 황유나 학생(고려대, 베트남 재외동포)은 "고등학생 때 청소년 모국연수 캠프에 참가해 OKFriends 봉사단 리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며, "한국에서 얻은 좋은 경험을 다른 재외동포 학생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활동 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вошли в число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финала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по литературе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заключительного этапа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по литературе,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с 31 марта по 6 апреля в Казани.

За награды боролись более 200 школьников,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67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числе участников олимпиады были и сахалинские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Программой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было предусмотрено три тура. Юным филологам предстояло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текст, пройти творческий конкурс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устном туре.

Дипломы победителей олимпиады получили участники из Москвы, Самарской, Архангельской, Челябинской, Пензенской, Московск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ей. В число победителей среди 11 классов вошел Александр Ким, лицея №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зером олимпиады стала Мария Ким из гимназии № 2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Отметим, что дипломами победителей наградили 18 школьников, призерами стали 87 ребят.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поздравляют ребят, их родителей и наставников с высокими результатами!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на 9 апреля завершены олимпиады по астрономии, праву, французскому языку, химии, литературе и информатике. Впереди ещ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18 предметам.

Пресс-центр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кс-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говорили к 24 годам тюрьмы

В Сеуле завершилось заседание по делу экс-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Кын Хе. Суд признал ее виновной по большинству обвинений, приговорив ее к 24 годам тюрьмы и штрафу в 18 млрд вон (около 16 млн долларов). Вердикт зачитал судья Ким Се Юн.

Напомним, экс-президенту РК Пак Кын Хе были предъявлены обвинения по 18 пунктам, включая коррупцию, вымогательство,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 полномочиями и другие. Прокуратура требовала для Пак 30 лет тюрьмы и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118,5 млрд вон (более 110 млн долларов).

Сама Пак считает себя невиновной.

Пак Кын Хе победила на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онце декабря 2012 года, став первой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женщиной-президентом.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2016 года разразился громкий скандал вокруг вмешательств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близкой подруги Пак Кын Хе Чхве Сун Силь. К расследованию подключились основные СМИ и прокуратура, которые вскрыли значительные факты нарушений.

В стране стали проходить многомиллионные мирные акции протеста с требованием отставки Пак Кын Хе. 9 декабря 2016 года парламент РК проголосовал за временное отстранение Пак от власти. 10 марта 2017 года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утвердил импичмент, окончательно сняв Пак Кын Хе с поста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31 марта Пак Кын Хе была арестована. На досрочных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9 мая 2017 года победил политический соперник Пак Кын Хе Мун Чжэ И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 Москве состоитс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молодых корееведов

19–20 апреля 2018 г. в Москве в Институте стран Азии и Африки МГУ состоится Пят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молодых ученых-корееведов, посвященная 10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рофессора Михаила Николаевича Пак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а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центр корееведения МГУ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Корейского фонда (The Korea Foundation).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рассмотреть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актуальных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дисциплин: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ка, история, филология, культура.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студенты, магистранты, аспиранты вузов России, стран СНГ 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а также кандидаты наук, защитившиеся в конце 2016 – 2018 гг.

В работе конференции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не тольк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узовской науки, но и молодые корееведы, работающи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частных структурах, другие специалисты, занятые в корееведении.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 до 35 лет.

Рабочие языки: русский, английский и корейский.

По итогам конференции возможна публикация отдельных докладов в виде статей в очередном выпуске «Вестника российск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РАУК (Росси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и,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Завершен перевод второго тома романа Пак Кён Ри «Земля»

Осенью 2016 года в Москве вышел 1-й том романа-эпопеи «Земля» классика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Пак Кён Ри в переводе российского писателя Михаила Пака. И вот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в начале марта Михаил Пак завершил перевод 2-го тома. Журналисты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опросили писателя рассказать о романе:



Михаил Пак

Роман «Земля» охватывает почти вековую историю Кореи – с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19 века до середины прошлого столетия. Небольшая деревушка, затерянная среди гор. Жители её живут извечными заботами – растят детей, добывают хлеб, радуются минутам отдыха... Но при ближайшем рассмотрении, нашему взору предстают все краски и нюансы древнейшей культуры корейцев, их быта, истори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людей. Действие первого тома с его героями перетекает во второй,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живописные лица и типы, – в деревушке происходят поистине

вселенские страсти – любовь, ревность, зависть, самопожертвование... Это было время, когда в стране зарождалось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е движение против японского милитаризма.

Работа над переводом 2-го тома «Земля» длилась целый год. Шаг за шагом, по мере продвижения вперёд, я испытывал огромную радость и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от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с творчеством Пак Кён Ри, окунаясь в её произведение, я открывал для себя неизведанную планету, предо мной раскрывались огромные пласты многовеков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Хотел бы сказать, что прежде я уже переводил известных коре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 И Мун Ёля, его роман «Сын человека», «Любовь в Дунхуане» Юн Ху Мёна, редактировал роман «Принцесса Пари» Хван Со Гёна. Но все эти произведения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охватывают современную жизнь Кореи.

Глубинные корни страны, чаяния и надежды народа, жизнь простого человека с его мечтами и надеждами – показала с величайшим талантом Пак Кён Ри в своём романе «Земля»

2-й том романа-эпопеи «Земля» выйдет в Москве летом нынешнего года.

(Источник: газет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 3, март 2018 г.)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США надеется встретиться с лидером СК в мае или начале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надеется встретиться с лидером СК Ким Чон Ыном в мае или начале июня. Об этом глава Белого дома сообщ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журналистам перед заседа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дновременно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будет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что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отношения, отличающиеся от тех, что существовал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Он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Вашингтон и Пхеньян ведут подготовку к первому в истории саммиту, постоянно контактируя друг с другом на различных уровнях. Дональд Трамп добавил также, что пытается нормализо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Пхеньяном следовало гораздо раньше, предыдущими президентами США, 5-10-20 лет назад.

Россия приветствует постепенную нормализацию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Россия приветствует постепенную нормализацию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предстоящие контакты Пхеньяна с Сеул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о вторник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ергей Лавров, выступа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со свои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коллегой Ли Ён Хо.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е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событий идёт в русле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й дорожной карты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на подразумевает поэтапное, но устойчивое продвижение к завершающей фазе, каковой должна стать многосторонняя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б обеспечении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ключая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ю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 его словам,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достаточно подробно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ситуация вокруг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опросы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состояние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культурное и гуманита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Глава российского МИД принял приглашение свое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оллеги посетить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Пхеньян. Между тем,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возможные контакты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не обсуждались, подчеркнул Сергей Лавров.

87%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в Европе осели в Германии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В период с 2007 по 2016 год гражданство стран Европы получили 820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Гражданство приобреталось путём получе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ев, а также вступления в брак с местными жителями. П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Eurostat, представленным 9 апреля, в 2016 году паспорт одной из 28 стран ЕС получили 66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Это вдвое меньше, чем в 2015 году. Из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северян, осевших в Европе, гражданство Германии получили 396 человек,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 317 человек.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 эти две страны пришлось 87%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перебравшихся в Европу.

Более 100 тыс. человек требуют обсудить мирное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США и СК

Более 100 тыс. человек подписались под петицией с требованием обсудить на американ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саммите подписание мир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етиция была размещена 15 марта на сайте Белого дома We the People. Об этом 10 апреля сообщает радиостанция Свободная Азия. В петиции выражено согласие с проведением встречи лидеров США и КНДР,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Ким Чон Ына, поздравления и благодарность относительно нынешних действий в целях установления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Также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если будет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о мире, которое положит конец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формально продолжающейся 65 лет, то это великое событие надолго останется в истории.

Суд над экс-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Ли Мён Баком начнётся в апреле

В конце апреля начнётся судебное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о по делу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Ли Мён Бака, которому предъявлены обвинения по 16 пунктам, включая получение взяток, уклонение от уплаты налогов,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 полномочиями. Суд Центрально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круга Сеула передал это дело в 27-й уголовный отдел, который занимается дела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коррупцией.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суд включил данное дело в категорию особо важных, учитывая общественный интерес.

(RKI)

Новый роман Анатолия Кима: разглядеть в жизни радости

Мир вокруг – велик и чудесен, напоминает **Анатолий Ким** в своем новом романе "Радости Рая". Это самое оптимистическое чтение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читает литературный критик **Сергей Морозов**.

Мир стал плоским и маленьким. Поблек, съёжился. Потерял в объеме. Стал простым, понятным, а значит — унылым. Когда-то, в детстве, казалось, что там, за поворотом, лежит чудесная страна, и тебя ждут необыкновенные приключения. Техника и интеллект изрядно потрудились, чтобы развеять эти надежды. Вечное стремление к большому ("Проси себе иног царства, потому что это слишком мало для тебя") сменилось примирением с философией малых величин. Других царств не будет. Только такое — маленькое.

От звезд – к монитору

Человек стремился к звездам, а в итоге запер себя в виртуальной реальности, ограничил мир размерами диагонали монитора. Никуда уже не надо спешить и стремиться: "Счастье найдено нами". Есть айфон или айпад – значит, бытие покорено нами, оно запуталось во Всемирной паутине, уместилось в прокрустово ложе картинок и гиперссылок.

Мы пронзаем пространство на скоростных самолетах. Но что такое время полета, как не время пустоты, которой мы только и овладели?

Некогда русский писатель Алексей Писемский сетовал на то, что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убила литературу: "Теперь человек проезжает много, но скоро и безобидно, оттого у него никаких сильных впечатлений не набирается, и наблюдать ему нечего и некогда, — все скользит. Оттого и бедно".

В суждении этом слышны отголоски стариковского консервативного ворчания, но есть и правота: слишком уж мы стали скользить, слишком обеднели в плане впечатлений. Потому и романы многи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герои их, вроде бы скачут по всему Земному шару, напоминают перемещение из одного угла комнаты в другой.

Но мир не пус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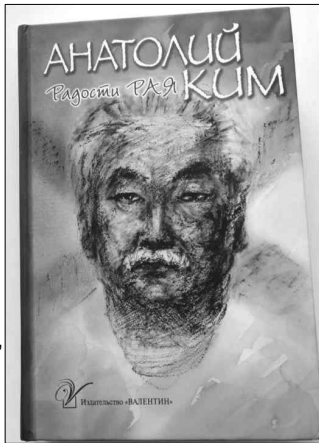
Роман "Радости Рая" Анатолия Кима, знаменитого автора "Белки", "Отца-леса", — попытка воспротивиться устоявшейся современной картине мира. Мир не пуст. Он по-прежнему велик и чудесен. И счастье, "райские радости" — должны быть обретенны нами. А для этого неплохо бы исходить Вселенную своими ногами.

Конечно, есть некая двойственность, запутанность подобного искания. "У тебя есть то, что ты не терял", — гласит часть известного софизма. Точно так обстоит и с радостью бытия. Она потеряна не столько по факту, сколько в восприятии. Райскими радостями, неполный перечень которых приведен в книге, пронизана каждая минута нашей жизни, но мы не замечаем этого.

То есть, речь в романе Кима идет о своего рода слепоте, узости нашего восприятия, боязни безбрежных просторов Вселенной, о перегородках между временами и культурами, искусственно возведенными человечеством.

Но дух веет там, где хочет, и герой романа, альтер эго самого Кима, отправляется в ничем не стесненный полет, на поиски радости по временам и континентам.

Время человека – вечность, место бытия – везде. И



да, Гераклит был прав: все течет, все изменяется.

Понятно, что у читателя, привыкшего к комнатному, далекому от космизма, мировоззрению соврем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в которой человек — пуп земли, а последняя имеет плоский вид и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пределами субкультур и многоэтажек), в процессе чтения книги, вполне может начаться приступ своеобразной агорафобии (страх людных мест, страх открытых пространств — ред.). Но для Кима принцип всеприсутствия неизблем, поэтому его мысль и воображение не знает преград и стеснения.

Где счастье, там печаль

И нет ничего удивительного в том, что как-то, где-то (что значит везде) сошлись Александр Македонский, Александр Ким (дед автора) и Константин Циолковский, сошлись и заспорили: кому живется весело, вольготно на земле?

Ответ почти некрасовский: всем и никому. В какой-то момент Ким приходит к вполне очевидной идее взаимосвязи печали и счастья. И в этой причудливой смеси тоже таится своего рода радость.

В своем новом романе Ким ломает условные перегородки между литературными жанрами (в "Радостях Рая" есть черты фантастическ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философского романа, признаки 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ого повествования), разрушает границы между вымыслом и реальностью, наукой и поэзией, богословскими догмами и метафизической реальностью, социальн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ю, флорой и фауной, живым и неживым, космосом и человеком.

Это абсолютно свободный роман, в котором понятие пространства-времени, любая определенность становятся эфемерными и малозначимыми. "Радости Рая" — книга, в которой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иллюзорность концов и начал этой философии смертности, питающей эгоизм, империализм и стяжательство. И конечно же, перед читателем настоящее пиршество языка и стиля, роскошной космической поэзии. Самое оптимистическое чтение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се длится, продолжается и взаимопереходит друг в друга. Все есть. Не следует заслонять радость бесконечн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печалью безвозвратного ухода: "Дорога жизни вела меня повсюду, не имела никакого начала, не привела меня ни к какому концу, которого тоже не было".

Кто такие люди? Ожившие звезды. Как мы могли забыть об этом? Как мы запомнили о том, что пришли в мир познать его радости, а не заниматься эволюциями, цивилизациями, революциями и всякими прочими "мастурбациями".

Все сияет. Смерти нет. "Живое живет живым". Раем пронизаны и вечность, и мгновение: "Я увидел бомжа Пушкина в драном, без пуговиц, камер-юнкерском мундире. О, было мгновение жгучей радости в том мире, уносимом потоком наводнения из созданных цивилизацией вещей, когда ты вдруг увидел среди разрушительного хаоса, на краю вздыбленного потока разломанных вещей ноосферы, стоявшего на самом коньке грохочущей железной крыши милого тебе маленького курчавого человека!".

Мы не одиноки. Это главная и тоже позабытая радость: "О, как я теперь понимал Робинзона! Брести или ехать на тележке Земли по космическому пространству долгими годами в одиночестве — это невыносимо!" "Радости Рая" — роман не простой для чтения. Но ведь это и понятно: проще горя ничего нет, а радость устроена сложно. Радость еще следует разглядеть в наслоении ежедневных событий, которые мы ошибочно принимаем за истинное бытие.

(Источник: Спутник ньюс)

«Чёрный список» культурных деятелей учитывался в культурных программах РК и Франции

Появилась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м, чт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ак Кын Хе учитывала «чёрный список» деятелей культуры при планировании круп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с Францией. Речь идёт о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оводившихся в 2015-2016 годах по случаю 130-лет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ходе отбора участников культурных программ оргкомитет составлял свои списки кандидатов, которые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РК сверяло с «чёрным списком», в результате из числа участников исключались неудобные кандидатуры. Как указывают данные комиссии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данного дела, в процесс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посольство РК во Франции и Национальная служба разведки. Так, из списков участников были исключены несколько фильмов и писателей. Французская сторона назвала это «явной цензурой», пригласив исключённых за свой счёт. Общий бюджет программ обмена между РК и Францией составил 9 млн 400 тыс. долларов. Мно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одились за рубежом. Поэтому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ещё не раскрыто немало подобных случаев.

(KBS World)

На курильском острове Шикотан откроют два новых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завода

В селе Крабовозовском продолжается возведение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 переработке рыбы. Пуск его первой очереди состоится в ок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А летом, как ожидается, в другом селе Шикотана – Малокурильском – раз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еще одного, более круп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которое будет выпускать рыбопродукцию в мороженом и охлажденном видах, а также консервы. Реализация двух проектов позволи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создать на острове 820 рабочих мест и привлечь около 1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част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бухте Крабовой для но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уже построили уникальный грузоперевалочный причал понтонного типа. Обработаться здесь могут сразу два промысловых судна. Улов из охлаждаемых трюмов бережно перекачивается на берег по специальным рыбоканалам. Такая технология позволяет сохранять высокое качество продукции.

Рыбокомбинат «Крабовозовское» сегодня снабжает всю страну замороженной рыбой.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здесь наладили производство консервов и теперь ежедневно выпускают до 8 тысяч банок с печенью трески и минтая. Всего в 2017-ом завод принял в обработку 23 тысячи тонн сырца. С вводом второ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линии эти объемы значительно вырастут.

Сегодня существующие мощности полностью загружены. С запуском второго завода мы сможем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ерерабатывать до 900 тонн рыбы – минтая, скумбрии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сардины – сельди иваси. Предприятие станет самым современным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Установим там лучше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з Германии и Исланд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к четырёмстам имеющимся будет создано 120 рабочих мест, – рас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Бочарников,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Курильский рыба». –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едприятия также разместится жиромуч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на 20 тонн в сутки и общежитие для рыбообработчиков.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мы намерены приобрести еще одно промышленное судно.

По оценкам строителей, новое предприятие уже готово на треть. Установлена основа цеха – многоуровневый каркас, ведется поэтапная заливка бетона.

К сентябрю мы должны запустить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завода. Это линия разделки минтая. Рыба будет перерабатываться в тушку без головы и филе. Отходы пойдут на туков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компании-подрядчика АО «Гидрострой» Юрий Светликов.

Второе современное для Шикотана и вс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приятие появится в селе Малокурильском. Его возведение, как ожидается, начнется предстоящим летом. Проект стал якорным для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Курилы». Основой комплекса по выпуску мороженой и охлажденной рыбопродукции, а также консервов, станет существующий рыбокомбинат «Островной».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новый консервный завод, запустить линии по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е рыбы и производству рыбной муки, морозильный склад на 15 тысяч тонн и две роботизированные морозильные установки. Будет создано более 700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заводов на острове Шикотан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выполнения задачи по развитию отрасли, которую постав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дал поруч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му министерству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сытить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страны качественной, разнообразной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ей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год отмечен наибольший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прирост жителей – более 3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2017 году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добился лучших в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показателей демографии. Зафиксирован рекордный коэффициент рождаемости – 12,9 на 1000 населения. На низком уровне остается смертность. А средня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достигла 68,7 лет.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IV всероссий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на собрала более 200 участник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эксперты в области демограф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они обменялись опытом по вопросам сбережения здоровья,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роста рождаемости и укрепления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Организовали мероприятие Министерство РФ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гент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 прибывшего на форум Вячеслава Потехина – многодетного отца и общественника из сахалинского Холмска – своя ответственная мисси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техины победили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Семья года-2017». В этот раз они охотно поделились опытом создания большой и счастливой «ячейки об-

щества». Все члены семьи ведут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занимаются спортом, дети – отличники в учебе.

– Главное – любовь,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и общий позитивный настрой. Это помогает добиваться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 раскрывает секрет семейного счастья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Многодетный Сахалин». – На островах неуклонно растет количество многодетных. Считаю, что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ддержка государ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она более весомая, чем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Это ежемесячные выплаты, различные льготы, помощь в покупке автомобиля и квартиры. Например, у нас семь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остава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из бюджета от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до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ли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Все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ие стимулы для повышения рождаемости.

Эксперты разделяют точку зр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ика – улучшение в регионе демографии во многом связано с мощной поддержкой семей с детьми. В действующем перечне – более ста различных мер. Сахалинский опыт должны активно перенимать друг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субъекты, убежден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РФ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ергей Качаев.

– Сахалин стал пионером в стимулировании первых рождений. Сегодня в регионе выплачивают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за первенца – более 200 тысяч рублей. Уверен, такую практику необходимо активно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на весь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многого добилась и в реализации жилищных программ, продолжил он. На островах сейчас строится столько же жилья, что и в 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Только в 2017 году его было введено более 34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Субъект вышел в лидер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объема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ьного жилья. Активно возводятся, и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арендные дома – это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для России опыт. За два года сдано 20 многоэтажных зданий. Квартиры в них передаются в найм по цене на 50 процентов ниже среднерыночной. Такое жилье востребовано у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ботников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служащих и сотрудников силовых ведомств.

С 2017 года для семей с детьми установлена льготная ипотека.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кредит выдается под 3,5 процента годовых, а при появлении второго – ставка снижается до нуля.

–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 добился очень хоро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 жилищной поддержке молодых, студенческих и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Такой опыт заслуживает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и должен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ругим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и регионами, – сказал Сергей Качаев.

Чтобы улучшить демограф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регионе, помимо наращивания объемов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 решения жилищных вопросов,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направили усилия на решение прочих назревших проблем.

– Это нехватка мест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вопросы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услуг в систем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азвития 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Была проделана серьезная рабо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нормативной базы, запущены региональ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отмет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Вера Щербина.

Существенные изменения к лучшему произошли в медицинской сфере. Только за прошлый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веде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хирургический корпус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диспансера, амбулатория в селе Троицком на 120 посещений в смену, перинатальный центр, три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а в селах Парусное, Новое, Новиково и врачебная амбулатория в селе Арги-Паги. Всего же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на островах построено 17 ФАПов, 6 больниц и поликлиник.

Приобретены 69 автомобилей для скорой помощи и три передвижных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а,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жителям отдаленных сел. В больницы и поликлиники привлечено 549 врачей и 612 средних медработников. Объем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помощи в остров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увеличился на 48 процентов, что позволило значительно снизить показатель смерт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и младенческой (4,7 на 1000 родившихся, в среднем по стране – 5,8).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условия для роста рождаемости, в области повышают качество услуг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 беременным, для них запущена специ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определить группу риска 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аправить роженицу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медучреждение.

Сахалинские женщины также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 пройти процедуру ЭКО в ведущих медицинских центрах страны. При этом им оплачиваются расходы на проезд.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островах удалось ликвидировать очередь в дошко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для детей от 3 до 7 лет. И сейчас созда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ста для ребят более раннего возраста. Кроме того, запущена программ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школ. В области восстановлены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лагеря: «Сахалинский Артек»,

«Юны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 «Юбилейный». В «Чайке» построен модульный спортивный зал, в «Лесном озере» появился вод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ыл открыт первый кванториум – детский технопарк. Ребята получают там инженерные знания,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им в дальнейшем стать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и устроиться на работу в компании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Одно из главных достижений в спортивной отрасли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ышла в лидер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числу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на количество жителей.

– Сахалин очень многое сделал, чтобы улучшить демографию.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возьмем на вооружение передовые практики региона. Чтобы и в нашем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ситуация постепенно начала улучшаться, – отметил один из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делегации из соседнего региона Владислав Звничайный.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вои дорожные карты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редставили вс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регион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 этом поделится уже доказавшими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актиками. Они помогут решить важну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задачу, которая связана с тем, чтобы добиться начала процесса естественного и миграционного прироста населения в макрорегионе к 2025 году. Для этого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утвердило концепцию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конкурс «Учитель года»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творческих состязаний педагогов состоялась 10 апрел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Конкурс, призванный стимулирова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учителей и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повышение престижа профессии, проводится уже в 28 раз.

Испытан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 с 10 по 17 апреля на базе сразу четырех учреждений –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лицея №1,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7 и детского сада №55 «Веснуш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частие в них принимают 29 педагогов из 15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конкурсантов есть как молодые специалисты, так и опытные наставники. Это учителя математики, физики, информатики, истории, обществозн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химии, биологи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Кроме того,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марафона есть воспитатели детских садов, учителя-логопеды, педагоги-психологи и музыкальные руководители.

Сегодня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рудятся около 10 тысяч специалистов. Тре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ообщества имеет высшую или первую квалификационную категорию. Каждый пятый – молодой педагог в возрасте до 35 лет.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действует ряд мер поддержки. Это единовременное денежное пособие при устройстве на работу, которое может превышать 370 тысяч рублей, а также надбавка к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ения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 М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идим приток желающих работать в школе.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7 году прибыло 175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что на 22 человека больше, чем в 2016 году.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ставит задачу не снижать внимания к учителям, чтобы их работа оставалась уважаемой, престижной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й. Мы стараемся в полной мере выполнить это требование,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который поздравил конкурсантов с начал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стязаний.

Со словами напутствий к педагогам обратилась и Наталья Мурашов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 Желаю каждому достойно пройти конкурсные испытания, успеш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и таланты и умения! Пусть всем вам сопутствует удача, а атмосфера конкурса станет настоящим праздник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щения, – сказала она.

Участникам конкурса предстоит давать открытые уроки и мастер-классы, делиться опытом с коллегам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советах. Оценивать мастерство конкурсантов будут четыре состава жюри: большо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предметное и детское.

В финал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определятся три победителя в номинациях: «Учитель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учший педагог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дебют».

Имена лучших педагог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удут озвучены 17 апреля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которая пройдет на сцене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мени Антона Чехов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4월2일부터 두달 간 성인(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청소년(초, 중고등부) 글짓기 작품 공모
20주년 맞아 재외동포 이민사 기록문학 활성화 위해 체험수기 부문 공모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4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성인 부문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청소년 글짓기 부문이 진행되며, 총 상금 규모는 3,530만원 이다.

올해는 재외동포문학상 2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 이민사 관련 기록문학을 활성화하고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한우성 이사장은 "20주년을 맞은 재외동포문학상이 타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말과 정서를 지키고, 차세대 동포들에게는 한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어 사용의 동기 부여를 위해 '99년부터 재외동포문학상을 시행하고 있다.

“ 재외동포문학상이 20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한국시간기준 2018. 4. 2 TUE ~ 5. 31 THU

- 응모 자격**
 - 성인부문 | 거주국 7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 청소년부문 | 거주국 5년 이상 체류한 초·중·고 재외동포 청소년
 -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응모 불가 (우수상, 가작, 장려상 수상자는 응모 가능)
- 공모 분야 및 주제**
 - 성인부문 |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 시·단편소설: 자유주제
 - 체험수기: 이민과 정착 과정 속에서 겪은 본인, 가족, 친지의 체험담을 진솔하게 그린 내용
 - 청소년부문 | 중고등, 초등 글짓기
 - 한국(모국) 방문 또는 한국어 학습 경험담
 - 내가 다니는 한글학교에서의 일화 소개
 - 기타 자유로운 주제(현지 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체험담) 등

총 상금 3,530만원

*재외동포문학상 20주년을 맞아 역대 수상작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역대 수상자 분들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모요강 참조 www.korean.net

문의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부
Tel. +82-2-3415-0097
F-mail. culture@okf.or.kr

주최 재외동포재단 후원 외교부

[우리말로 깨닫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가족 중에 누가 아픈 것만큼 큰 걱정거리가 없다. 자신이 아픈 것도 큰일이지만 가족이 아픈 것은 그에 못지않은 고통이 된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일이 어찌면 가족의 아픔이 아닐까 한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집 안에 어둠이 자리하게 된다. 자신의 가족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래서 더 간절하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그런데 자식이 아픈 것과 부모가 편찮으신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자식이 아무리 오래 아프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고, 힘들더라도 이겨내고 자식의 치료에 몰두한다. 하지만 부모가 편찮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지가 약해지고 자꾸 핑계를 대게 된다. 그때 생각나는 속담이 '긴 병에 효자 없다.' 는 말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 어떤 때 사용하게 되는 말일까? 좋은 말인가?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우선 안타까운 속담임을 전제해 두고 싶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랜 병구완에 지쳐서 자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직장도 있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데 부모의 병을 돌보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치료비도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모든 정성과 걱정으로 부모를 모시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병과 나아지지 않는 치료에 몸도 마음도 지쳐간다. 나이 드신 부모의 병은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병구완을 함에도 점점 정도가 심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식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도 주변 사람들이 나무라기 어렵다. 이때 쓰는 표현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이렇게 지친 모습을 보일까 위로하며 사용하는 말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 계속되는 간병에 대한 이해의 표현이기도 하다. 어렵지만 좋은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변에 부모가 편찮으신 집이 있다면 늘 위로해 주고 힘을 북돋아주어야 한다.

이 속담을 부모님이 쓰신다면 가슴 아픈 표현이 된다. 자식이 애써서 하는 간병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아려온다. 부모는 서운함보다는 미안함이 커져서 답답한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종종은 아예 직접적으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종종은 하셔서 안 되는 끔찍한 말씀도 하신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 내가 아파서 자식이 힘든 게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부모는 내 병구완을 하는 자식을 보면서 아프고 슬프다. 그래서 아픈 부모님은 눈물이 많다. 눈물은 자신의 병 때문만은 아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다. 내리사랑의 반대말은 '치사랑'이다. 보통 부모의 자식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고 자식의 부모 사랑을 치사랑이라고 한다. 이 속담은 부모의 사랑을 절대로 자식이 이길 수 없다는 의미이다. 부모를 잃은 아이를 고아라고 하는데, 아이를 잃은 부모에 대한 말조차 없는 것은 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서는 말도 일리가 있다.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은 당연히 자식이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다. 자식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족한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 시간이 지났다고 마음이 약해졌구나, 내가 아팠다면 부모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되새겨야 한다. 긴 병에도 나약해져서는 안 된다. 자꾸 핑계대고 싶은 마음을 되살펴 보아야 한다.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하는 것이라는 말이 아프게 다가온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한식

한식은 문화다! 한식은 건강과 웰빙을 지향하는 음식으로 세계 식품소비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양한 한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해물파전

해물파전은 파전에 오징어나 조개, 등을 같이 넣어 부친 전이다. 파 한가지만으로도 전은 고소하고 부드러운 파전이 되어 동동주와 같은 전통주의 안주로 딱 어울린다. 그 파전이 고급화된 것이 해물파전이다. 이 해물파전은 파를 기본으로 한 것에 오징어, 대합, 새우, 등의 해산물을 섞는 것인데, 맛과 영양의 면에서 업그레이드 된 파전이라 하겠다.

단순히 파와 밀가루로만 만드는 파전에 비해 해물파전은 맛과 영양 면에서 뛰어나다. 더구나 제철 해물을 이용한 해물파전은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이 해물파전은 어떤 술에도 어울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술안주가 된다. 또한 커다란 접시에 한가득 펼쳐진 해물파전 한접시는 다른 반찬이 전혀 필요가 없는 술안주이자 훌륭한 한끼 식사로 대접받을 수 있다. 이 해물파전은 어떤 술에도 어울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술안주가 된다. 또한 커다란 접시에 한가득 펼쳐진 해물파전 한접시는 다른 반찬이 전혀 필요가 없는 술안주이자 훌륭한 한끼 식사로 대접받을 수 있다.

오징어나 굴, 낙지 같은 해물에는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회복이나 간보호에도 좋다. 거기다 파는 위장 기능을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신경



기능에도 좋다고 하니 해물파전은 궁합이 좋은 건강식이다. 비가 오거나 출출할 때 온 가족이 정을 나누면서 부쳐 먹어도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해물파전을 부치는 고소한 기름냄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냄새이기도 하다. 함께 정을 나누기 위한 적합한 음식이라도 불러도 될 듯하다.

(<코리아넷>에서)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이모저모

(2면의 계속)

42% населения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2017 год увеличилась на 2837 человек и составила на 1 января 2018-го 490 181 человек. Сниж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произошло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 на 424 человека, а в городских поселениях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увеличилась на 3261 человека.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произошло за счет естественного прироста (464 человека) и миграционного прироста (2373 человека).

Рост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отмече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нив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Курильском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Структура расселения населения в регионе в 2017 году осталась прежней. Рост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формировал наибольшую плот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 229 человек на квадратный километр, где проживает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населения области (42,0%). В среднем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от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составляет 5,6 человека на квадратный километр. Самый малонаселенный —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ий район, где плот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 менее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на квадратный километр,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주민속에설창작센터 «과거. 현재. 미래» 축제·경연대회에 사할린 주민들을 초대한다

사회문화기획으로 개최되는 제 1회 "과거, 현재, 미래" 축제·경연대회에 사할린 주민들을 초대한다. 기획의 우수 제작자들에게는 상금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신청서는 9월 15일까지 접수된다.

행사의 일환으로 4월 28일 10시에 주 일반과학도서관 (하바로브스카야 거리, 78) 강당에서 "사회문화적 설계"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된다.

이 외에도 국립극동철도통신대학 (하바롭스크 시) 혁신센터의 센터장인 정 옹게니가 진행하는 기획 작성법 무료 강좌에 축제·경연대회의 참가 희망자 모두를 초대한다.

참가신청은 4월 16일까지 ocntsakhalin@yandex.ru 이메일로, 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카를 마르크스 거리, 16번지, 410호에서 (평일 9:00부터 17:00까지) 접수한다고 주 민속에설창작센터는 전했다.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едлагает сахалинцам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е-конкурсе "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Будущее"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I областном фестивале-конкурсе проектов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го бренда "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Будущее".

Авторы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получают денежные призы и возможность воплотить свои идеи.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8 апреля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улица Хабаровская, 78) пройдет семинар на тему: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е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Начало в 10:00.

Кроме того, всех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е-конкурсе приглашают на бесплатное обучение по написанию проекта, которое проведет директор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Хабаровск) Евгений Тен.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6 апреля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ocntsakhalin@yandex.ru ил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ица Карла Маркса, 16, офис 410 (в будние дни с 9:00 до 17:00),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계시는 환경철 님께 드리는 축하문

회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건강하시고 귀댁에 행운과 부유함과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항상 성공하시길

됩니다. 친구들로부터

Дорогой Сергей!

Прими самые сердечные поздравления с 60-летием!

Пусть юбилейная сегодняшняя дата

В душе твоей оставит добрый след,

Желаем мы всего, чем жизнь богата: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мира, долгих лет.

Твои друзья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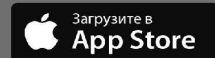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